

(주)캐리마

신축공장 준공 기념행사 개최 및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 선언



캐리마(대표·이병극)가 지난 6월 13일 독산동 신사옥에서 내외빈을 초청하여 많은 격려와 축하 속에 신축공장 준공 기념행사를 가졌다. 창립 23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 전시를 통해 캐리마의 기술력과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 취재 | 박지연 기자 |



캐리마(대표·이병극)가 지난 6월 13일 독산동 신사옥에서 내외빈을 초청하여 많은 격려와 축하 속에 신축공장 준공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독산동에 지상 4층 규모의 사옥을 증축한 캐리마는 사세확장을 통해 자사의 디지털프린팅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월 100대 규모의 'DPS-1' 생산능력을 갖춘 캐리마는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아날로그 현상기에 장착하는 것만으로 고품질의 디지털 사진판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DPS-1'은 기존 아날로그 인화기, 인화지, 약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인화단가가 경제적이고, 소량의 아날로그 인화로 인한 약품변질 우려도 디지털 작업과 같이 하므로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기계의 개조가 간단하며 장착과 탈착이 몇 초 만에 가능하여 매우 편리하다. 특히 오랫동안 운용해 왔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운용과정에서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밖에 'DPS-1'은 렌즈, 램프셔터 등의 노광부가 기존 미니랩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미니랩의 컬러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캐리마 관계자는 “아날로그 현상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디지털 인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고가의 디지털미니랩 장비 구입을 망설이는 소규모 스튜디오 운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현재 국내 시장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하여 해외 40여 개국에 수출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캐리마는 이날 주력제품인 'DPS-1' 외에도 즉석사진인화기 '오더시스템'과 만능 디지털 평판 프린터 등 다양한 프린팅 시스템을 선보였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는데 대형 TV 멀티큐브와 3D 입체 영상 프로젝터가 그것. 3D 입체 영상 프로젝터와 관련하여 기존 입체영상은 프로젝터 2대로 구현하는데 반해 캐리마는 1대로도 선명하고 입체감 있는 영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두 제품은 캐리마가 가진 DLP 노광 엔진을 이용한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디지털 화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선명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 향후 디지털 영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치러진 준공 기념식 행사에서 이병극 대표는 “캐리마는 지난



▶신축공장 준공을 기념하여 캐리마의 이병극 사장과 외빈이 함께 기념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신축공장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병극 사장



▶내방객들에게 자세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이병극 사장



▶캐리마는 23주년 창립식을 겸한 이번 행사에서 공장 준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공업체 관계자 및 자사 우수사원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23년간 사진현상기 제조의 한 길을 걸어오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사진시장의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굴지의 사진프린팅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4년간 4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어 2004년에 개발 완료한 'DPS-1'은 캐리마의 역사를 고스란히 나타낸다"며 "이 제품을 통해 일본에서만 월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세계 8개국에서 특히 출원 중에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1983년 CK산업으로 시작하여 아날로그 사진현상기를 제조하며 외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사진인화 시장을 이끌어온 캐리마는 변화하는 사진시장의 디지털화에 맞춰 2002년 'dp-21'을 개발하면서 한국정밀기술진

흥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4년에는 순수기술로 'DPS-1'을 개발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하는 우수품질인증마크인 EM을 획득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